

A silhouette of a cross on a rocky cliff against a sunset sky. The cross is positioned at the top left of the cliff. The sky is filled with warm, golden light from the setting sun, with some clouds visible. The ocean is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frame.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행 7:9-16

Acts 7:9-16



행 7:9-16 Acts 7:9-16

9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행 7:9-16 Acts 7:9-16

**10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행 7:9-16

Acts 7:9-16

11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12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행 7:9-16 Acts 7:9-16

13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모셔 오게 하였습니다.



행 7:9-16

Acts 7:9-16

15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16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 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설교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I.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어 쫓았습니다. (v.9a)**

9절 전반부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키
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
다.

창 37:4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 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창 37:5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창 37:9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 보
श्य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
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
어요."**

창 37:8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창 37:10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꿈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창 37:11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히 4:12-13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3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 4:14-16절

14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II.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vv.9b-16)

9절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10절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
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
스리게 하였습니다.

눅 23:34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
다.”**